



MISSION: 이 세상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어라!

트렉바이시클코리아



세계 자전거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트렉(TREK)이다. 석유 파동과 함께 미국의 자전거 산업이 커지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1976년), 5명의 장인들이 헛간에서 품질 좋은 자전거를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된 트렉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자

1976년 “세상에서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자”라는 미션으로 시작된 트렉(TREK)은 딕 버크 사장을 포함한 5명의 장인들이 작은 헛간에서 자

전거를 직접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금속을 직접 연마하고 용접하며 그들의 자전거는 품질과 함께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만큼 높은 판매율로 이어졌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기로 한 미션을 위해 그들은 더 나은 자전거를 만들어야 했고, 자전거 산업이 아닌 우주와 항공 산업의 엔지니어를 영입하여 그 미션을 이어갔다.

우주 및 항공기술을 자전거에 접목시키다

1980년대 트렉은 자전거 기술의 도약을 위해 항공기, 로켓, 우주선 등을 만드는 엔지니어를 영입하기로 했다. 산악 자전거가 붐을 일으켰던 그 시절,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의 가세로 트렉은 퍼포먼스 바이크의 성능향상에 큰 시발점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알루미늄과 카본 소재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용접이 어려웠던 알루미늄 가공을 가능하게 만들고 카본의 장점을 살려 경량 바이크를 성공시켰다. 그렇게 만들어진 트렉의 프레임은 기존 스틸 프레임에 비해 무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카본의 가공기술은 점점 완성도를 높였고, 그것이 바로 OCLV라는 기술로 불리우고 있다.



항상 자전거와 함께 하는 직원들

트렉 본사의 모든 직원들은 자신들의 책상에 자전거를 기대어 세워두고 점심때마다 자유분방하게 라이딩을 즐긴다. 그들은 주변의 도로뿐 아니라, 트렉에서 직접 만든 산악 트레일을 타며 그들 자체도 자전거 애호가로서 더욱 제품에 대한 애착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자전거 애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트렉의 자전거가 일반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

트렉의 모든 자전거는 라이프타임 워런티가 적용된다. 이것은 딕 버크 사장이 처음 자전거를 만들 때부터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며,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이어져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트렉이 A/S가 적은 자전거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미션달성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

트렉은 임직원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까지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항상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은 트렉의 브랜드 담당자뿐 아니라, 곳곳의 트렉 시스템에서 느낄 수 있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의류, 헬멧, 라이트, 속도계 등 트렉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라이프를 보장하기 위해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과 품질, 안전,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철학을 갖춘 그들의 움직임에서 자전거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다. 자전거의 또다른 변화가 만들어지는 요즘,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트렉이 자랑하는 제품들

마돈(Madone)

트렉의 로드 자전거 라인 중 에어로 타입에 속하는 모델로, 트렉을 대표하는 자전거이다. 마돈은 트렉의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어 올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마돈의 프레임은 KVF(Kamtail Virtual Foil) 튜브 형태로 개발되어 에어로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도로의 진동을 흡수해 라이더의 피로도를 급격히 줄여주는 IsoSpeed기술이 마돈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또한 에어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전거 컴포넌트 하나 하나가 통합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마돈은 사이클링 브랜드에서는 최초로 컨트롤 센터를 채용하여 시마노 Di2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마돈은 트렉의 커스텀 바이크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원(Project One)을 통해 프레임의 컬러부터 컴포넌트와 부품을 원하는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마돈은 9.2, 9.5, 9.9가 판매된다.

프로칼리버(Procaliber)

트렉의 대표적인 하드테일 MTB 모델로, 트렉 MTB 중 가장 가볍고 빠른 모델이다. 트렉 MTB의 특징은 스마트 휠 사이즈를 적용하여 15.5"이하 프레임 사이즈에는 27.5"휠(650b)이 장착되며, 17.5"이상의 프레임에는 29"휠이 적용되어 라이더의 신장에 따라 최적의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작한다. 트렉 프로칼리버는 트렉 MTB 제품 중 최초로 IsoSpeed기술을 적용해 거친 산악에서 라이딩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는 진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였다. 또한, 트렉은 스텝사와 협력하여 Boost110/148 허브 스페이싱을 개발하고 프로칼리버에 적용했다. MTB의 휠 사이즈가 커지면서 휠의 강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Boost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허브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휠의 강성은 27.5"사이즈 휠만큼 개선되었다. 프로칼리버 역시 프로젝트 원을 주문 가능하며, 국내에는 9.7, 9.8, 9.9가 판매된다.





이온 700(Ion 700)

본트래거 이온 700은 2015년에 출시된 본트래거 최상급 전조등 제품으로 미려한 디자인과 700루멘이라는 강력한 밝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 올해의 라이트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이온 700은 270도 이상의 시야각을 제공하며, Creed LED가 적용되었고, 4가지 빔 모드를 제공한다.

이온 700은 배터리 내장형 제품으로 USB를 통해 충전 가능하고 완충 시 최대 4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온 700은 기본형 모델인 이온 700R과 본트래거 트랜스미터 리모트를 통해 무선으로 제어 가능한 이온 700RT가 준비되어 있다.



발리스타 헬멧

발리스타는 본트래거 헬멧 라인 중 최상급에 해당하는 신제품이다. 발리스타는 트렉 팩토리 레이싱(Trek Factory Racing) 팀에서 올해 은퇴한 앤스 보이트 선수의 아워 레코드(Hour Record) 기록 갱신 도전을 위해 제작된 에어로 헬멧을 개선하여 제작되었다. 발리스타는 에어로에 최적화된 헬멧으로 아시안핏으로 출시되어 아시아인들의 두상에 최적화된 핏으로 제공된다. 발리스타는 트렉 팩토리 레이싱 팀 버전 색상과 블랙 색상 두 가지로 만나볼 수 있다.

